

‘건축 실천’에 앞장서는 캐나다건축센터

이승열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1979년 필리스 램버트(Phyllis Lambert)에 의해 설립된 캐나다건축센터(Canadian Centre for Architecture: CCA)는 국제적 건축 연구기관이자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기관이다. 1992년 건축 유산에 대한 공헌으로 캐나다 퀘벡 문화부로부터 공식 박물관 지위를 부여받은 캐나다건축센터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나오며 끊임없이 동시대 담론을 만들어 내는 연구기관이자 건축박물관으로 발전해 왔다.

캐나다건축센터의 방향은 동시대 건축 및 도시의 근본적인 정의와 결론들을 검토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지적해 내는 일이다.* 가령 동시대 건축사회의 복잡성은 개인적 또는 계급적인 차이에서 야기되는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어렵다. 하지만 캐나다건축센터는 이 까다로운 문제를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민중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건축 기관과 차별성을 갖는다.

캐나다건축센터는 건축문화 영역에서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라는 맥락 아래 일관되고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해 왔으며, 그 건축적 담론은 논리적인 견고성을 갖췄으며 일관성을 보인다.

캐나다건축센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몇 가지 서술을 통해 이들의 거대한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에서 삶으로

캐나다건축센터는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연구기관이다. 특히 캐나다건축센터는 ‘공적 관심사’를 연관 짓는 주제를 발제하고 비판적 시각을 이끌어 낸다. 이곳에서 다루는 주제는 건축의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건축 밖의 실천론 및 방법론까지 적용한다.

* 캐나다건축센터(CCA). 인터뷰.(2021.8.30.)

“캐나다건축센터는
국제적 건축 연구기관이자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기관이다.
캐나다 퀘벡 문화부로부터
공식 박물관 지위를
부여받아 40년이 넘도록
건축박물관으로 발전해왔다.”

캐나다건축센터의 연구 결과는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판물이나 전시, 아카이브 또는 공공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되어 표현된다. 즉 캐나다건축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는 이들의 근본적인 호기심과 물음 그리고 ‘공적 관심사’로부터 시작된 질문의 결과를 보여주는 수단인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캐나다건축센터가 건축 연구기관을 넘어선 세계적 건축박물관으로 인정받는 이유이다.

캐나다건축센터는 개관 후 지금까지 200여 건의 전시를 기획하고 10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다수의 국제 강연과 콘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이곳의 연구와 전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쟁, 이주, 건강, 에너지 공급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와 접근법이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캐나다건축센터는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기부금 전체 재정 자원 구성을 살펴보면 40%는 기부금, 50%는 개인 및 재단들의 지원금과 수익, 나머지 10%는 교부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건축센터는 캐나다건축센터의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기관들인 앤드루 W. 멜론 재단(Andrew W. Mellon Foundation)과 그레이엄 재단(Graham Foundation) 그리고 캐나다예술위원회 등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는데, 멜론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1,500 명이 넘는 연구자들을 양성해 냈다. 이를 통해 캐나다건축센터는 그 존재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과 공공 프로그램을 더욱 증진할 수 있었고, 캐나다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다.

이처럼 캐나다건축센터는 ‘-의 건축’을 넘어 ‘-를 위한 건축’과 같은 주제에 주목하며, ‘건축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캐나다건축센터의 연간지 <The Museum is not Enough>: 제호가 기관의 비전과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캐나다건축센터 아카이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에 있어 과거와 동시대를 이어주는 실천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저항에서 담론에 이르기까지

앞서 캐나다건축센터의 설립자인 필리스 램버트는 건축가이자 큐레이터이며 동시에 비평가와 활동가이기도 하다.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건축을 공부한 그는 ‘도시의 모순’을 발견하고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미국 시카고에서는 온전한 건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현상에 강한 혐오를 느낀 그는 사라지는 도시에 관한 생각들을 체계화 하였다. 이윽고 그는 몬트리올에서도 일어날 이 현상들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하였으며, 유사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하였다.

“저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관료 몇 명이 지역 개발을 모두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지식, 도시 사람들이 모여 도시건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1981년은 필리스 램버트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기이다. 그는 무분별한 개발에만 몰두하는 관료들에 맞서 밀턴 파크(Milton-Park) 지키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도시의 사소한 것들부터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필름에 담으며 기록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건축 아카이브는 합리적 투쟁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도시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도시건축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한 램버트의 행위는 이후 캐나다건축센터 아카이브의 주요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정신이 담긴 캐나다건축센터 아카이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에 있어 과거와 동시대를 이어주는 실천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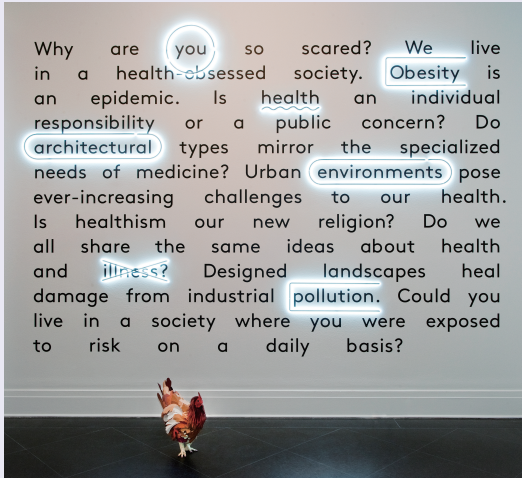
완전한 자각, 회색지대(Grey Area)

건축가 알도 로시(Aldo Rossi)는 도시가 사회·문화·경제적 성격에 따라 형성되기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삶을 공유하는 장소이자 동시에 집단의 기억이 있는 장소라 정의하였으며,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공간이란 ‘집단적 삶이 가지는 모든 형태의 근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도시건축은 개별적인 의미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캐나다건축센터의 아카이브는 우리가 도시에 사는 법과 도시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는 소득 수준과 별개로 모든 사람의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모두를 위한’ 번영을 되풀이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공적 관심사’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진다.

* Harrouk(2020). <https://www.archdaily.com/929378/city-dreamers-documentary-highlights-four-women-architects-who-rethought-the-city>

** Foucault(1982.3.)



'Imperfect Health: The Medicalization of Architecture' 전시



'Cedric Price, McAppy'에 전시된 'Where were you when it dropped?'

©CCA

GLOBAL THINKTANK

도시는 우리 삶을 반영하는 표상이다. 도시와 건축 모두 주체적 존재인 '우리'를 담고 있기에 우리의 삶과 관계한다. 따라서 도시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의 결합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다. 캐나다건축센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러한 구조를 '회색지대'라고 칭하며, 이를 추적한다. 회색지대를 찾아내고 이에 따른 담론의 결과물이 모여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적 관심사 확대를 위한 매체의 활용

캐나다건축센터의 담론과 연구를 통한 결과는 흥미롭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다. 예컨대 '집에서 꺼내 줘!(Get it out of your house!)'와 같은 워크숍은 'A Section of Now: Social Norms and Rituals as Sites for Architectural Intervention'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부엌이 필요한가? 식사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어디인가?'라는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빈 집 안에서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워크숍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주변에 있는 공간과 어떻게 기능을 공유할지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집의 일부를 재해석하도록 한다.

최근 캐나다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된 전시 '우리들의 행복한 삶: 감성 자본주의 시대의 건축과 웰빙(Our Happy Life)'에서 우리 삶의 소재들을 취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어와 표현 형식은 캐나다건축센터의 신념과 일치한다. '우리는 어떤 행복을 느끼고, 어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행복'을 추적하였으며, 이 담론이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 및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해부하였다.

“캐나다건축센터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묘사한다.”

영화 ‘우리가 혼자 살 때(When We Live Alone)’를 통해서 현대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한다. 혼자 사는 도시 거주자의 증가와 도시 속 삶의 외로움에 대한 원인은 명백해 보이지만, 사회적 가치의 변화나 노동과 부(富)의 증가 등 사회와 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새로운 도시 조건에 대해 질문하고 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영화를 관객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수용적이고 재생산적인 형식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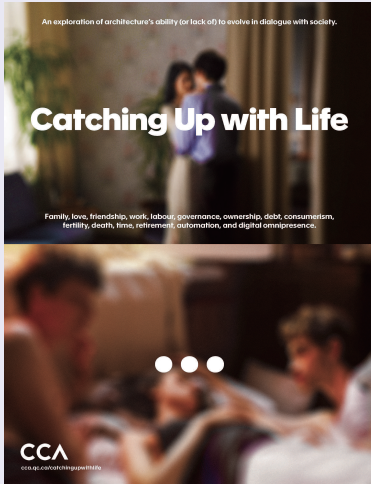
특히 캐나다건축센터가 1년간 진행한 연구 ‘Catching Up with Life’를 기록하여 올해 출판한 <A Section of Now: Social Norms and Rituals as Sites for Architectural Intervention>은 우리의 왜곡된 사회적 규범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과 사회 간의 대화를 재촉한다. 이처럼 캐나다건축센터는 ‘현실’과 접촉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적 태도와 표현 방법 덕분에 특수성을 가진 모범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Nuno Cera



‘우리들의 행복한 삶: 감성 자본주의 시대의 건축과 웰빙(Our Happy Life)’ 전시



Catching Up with Life

나가며

캐나다건축센터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묘사한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상생활 속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건축 담론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대중이 '우리'를 자각할 수 있게 되면 선명히 드러날 문제 형태를 알아챌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건축 담론의 시간은 삶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것이다. 도시와 건축, 즉 공동의 목표 달성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모두 도시 관찰자가 되어 도시·건축 담론의 파편(fragments)을 수집하고 확고한 신념을 투여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견해는 아마 이상적이라기보다 낙관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1 Harrouk, C. (2020). City Dreamers Documentary Highlights Four Women Architects Who Rethought the City. ArchDaily. <https://www.archdaily.com/929378/city-dreamers-documentary-highlights-four-women-architects-who-rethought-the-city>
- 2 Foucault, M. (1982.3.) Space, Knowledge and Power: Interview with P. Rabinow. *Skyline*: 20.
- 3 캐나다건축센터[CCA]. 인터뷰.(2021.8.30.)
- 4 캐나다건축센터 홈페이지. <https://www.cca.qc.ca/en/>(검색일: 2021.9.13.)
- 5 Armstrong, Ann R.E. (2006). Architectural Archives/Archiving Architecture: The Digital ERA. *Art Documentation: Journal of the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25(2), 12 - 17.
- 6 Carson, C. (2020). I am an activist, but that's part of being an architect': legacy and preservation in Phyllis Lambert's eyes. <https://www.frameweb.com/article/i-am-an-activist-but-thats-part-of-being-an-architect-legacy-and-preservation-in-phyllis-lamberts-eyes>(검색일: 2021.8.19.)
- 7 박세미, 지오바나 보라시. (2019). [Interview] 캐나다 건축센터로부터 듣다: 박물관으로 충분하지 않다. *Space*, 6월호. https://vmospace.com/report/report_view.html?base_seq=NjE5. (검색일: 2021.9.13.)